

투데이 칼럼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나? 개입이나? 오직 진실추구 여부에

다 양한 전문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뉴스를 깊이 있게 다양한 각도에서 찾아서 보는 것도 힘들다. 그러다보니 뉴스가 각종 의혹으로 도배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싹트기 마련이다. 저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진실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박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사안별로 명확한 해명의 글들이 넘쳐나도 대부분 자세하게 읽어볼 생각도 없다. 그리고 사실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이 현실인 것 을 어찌하겠나. 그래도 곳곳하게 진실을 일리는 것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절차 전 언론보도와 여론동향을 보면서 과연 청문제도를 제대로 존속시켜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이런 식의 무차별적 도덕검증을 통과한 사람만이 장관이 되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장관이 되려고 하겠는가.

조국 당선 과거에 이런 말 했지. 그런데 가 보니 당신 그렇게 살지 못했군. 알고 보니 당신 비열한 이중인격자야. 이런 식의 검증은 한 마디로 저열한 것이다. 그것은 한 인간의 한계로, 한 인간의 부덕으로 조용히 말하면 되었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까지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행위

는 참으로 부끄러운 행위다. 검증을 빙자한 한 인간에 대한 테러다. 문제는 이른바 '도의적 책임'에 있다. 이 사안에서 과연 조국 후보는 얼마나 큰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까. 그가 한국 상류 기득권사회의 일상 관행을 '무심코' 답습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그에 관해 좀 더 성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고 쓸쓸한 뒷맛을 남기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그 누구도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조국후보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는가. 게다가 그의 부와 재산은 그가 축적한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억울한 점도 없지 않다.

한국은 아직도 '시민민주주의'의 정착조차 엄청난 위협으로 느끼고 그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버

섯이 언어도단으로 백주대낮을 할 보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가 누구든 한국사회가 당연한 오늘의 환경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그럴 힘과 자격을 주어야 한다. 조국 후보에게 지나친 '이상'을 투사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현실'을 패배적으로 수용하지도 말아야 한다. 조국 후보에게 그 모순 속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할 일일 것이다. 그것은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개혁, 그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개혁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전적 압수수색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현 정부의 검찰은 정치적 독립이 완전히 보장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이 정치성진국이란 의미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다. 다만 없는 것을 과장해서 무리하게 수사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독립을 넘어 정치적 개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나 개입이나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윤석열호를 믿는다. 또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조국 후보에게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은 간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고문

최근 떠들썩했던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영상을 보았을 것이다. 차량사이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추월하는 운전행위 즉, '칼치기'라고 불리는 난폭운전을 한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칼치기에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를 폭행한 영상으로 인해 난폭운전이 사회적 이슈에 올랐다. 난폭운전이란,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행위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 등 교통흐름 자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난폭운전은 보복운전으로 이어지기 쉽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난폭운전은 5,255건, 보복운전은 3,047건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난폭운전은 51%, 보복 운전은 16.2%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깜짝 놀라고

난폭운전 NO! 양보운전 YES!



이 지 원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욕'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필자도 운전을 하다보면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맞닥뜨렸을 때이다. 실제로 경찰의 최근 3년간 공익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깜빡이 미점등'의 신고 건수가 전체 15만 8762건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으며, '끼어들기'가 15만 2910건(16.7%), '진로변경 위반'이 13만 4778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운전과 방향지시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순간의 감정에서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가 양보하며 배려하는 교통문화 의식이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증액된 예산 확보로 전북 대도약 보여야

전북도는 예산 증액 확보로 대도약을 보여줘야겠다. 저번에 민선 7기 1주년을 맞는 기자 간담회의 자리에서 도지사는 도정의 성공을 약속했다. 그때 도지사가 말한 춘화추실은 전북 대도약의 다른 이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도지사와 전북도 고위 관계자들은 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아야겠다. 전북도가 늘 강조하고 말해왔던 바 자존의식으로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것은 도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지금의 예산 확보 열기가 연말까지 계속 뜨거워야겠다.도지사가 서을 여의도의 컨스틴 호텔로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내년 확보에 공조해줄 것을 당부한 것은 그래서 기대가 된다.전북도가 여러차례 말한 바 있는10대 핵심 프로젝트가 다시 생각나는 지점이다.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사업이며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 등 그 핵심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위해 좀 더 힘차게 뛰어아졌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한 현안들이 추진에 있어서는 터덕거리고 있는데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실력 발휘를 해줘야겠다.전북

도가 해결해야 할 대상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전북도가 도민에게 여러 차례 언급하고 또 그 성취를 자신했던 것들이다. 전북도는 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힘내야 한다. 발전 방침을 밝혔다가 나중에 예산 부족으로 일이 안 풀렸다는 식의 변명의 말을 들려주어서는 안된다.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수십 년 뒤쳐진 나후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말이지 전북도는 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힘내야 한다. 이대로 세월만 가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이대로라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이 언제 성취의 모습을 보여줄지 전망하기가 어렵다. 예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거나 청사진대로라면 진작에 완료됐어야 할 사업들이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 답답함만 안기고 있다. 전북 대도약을 선언한 만큼 달린 행보를 보여야 한다. 예전처럼 점잖은 행보는 미흡하다.발전 프로젝트들은 반드시 성공가도를 달려야 한다. 발전 프로젝트들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전북도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려면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역발전사업 발굴했으면 추진 단계 넓어야

지역발전 발굴사업들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사업 발굴과 함께 청사진 그리기가 대단했는데 지금은 어찌 조용하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이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지난 날의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전북발전연구원 사업들을 발굴하고 전북도가 공표했던 거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에 대해 짚어볼 바가 있다. 발굴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말이다. 사업을 발굴했으면 지역 발전과 연결돼야만 하는데 그게 없으니 답답하다. 전북도의 역량 발휘가 있어야겠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희망하며 발굴한 사업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지역 속에서 가물가물한 것이 적지 않다. 이같은 지적은 사업 발굴을 책임지는 게 결코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에 있다.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서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발전 발굴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도내 홍보용에 그치고 말았다.

전북도의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 뒷심 발휘가 늘 아쉽다. 사업들을 발굴한 것에 의미가 있게 하려면 뛰어아 한다. 사업발굴은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의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 구상이 실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중앙 정부로부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획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각각의 사업들을 본래에도 올려놓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전북도는 욕심을 내야 한다. 무엇이고 돈이 맘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 증액을 위해서 뭐고 있다는 보도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진취적인 행보로 실득력을 보여줘야겠다.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항상 똑같다. 그것은 지역 발전이다. 젊은이들은 발굴사업들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를 고대하고 있다. 일자리가 많 이 창출되고 고용도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여기 거들 말 하거나 사업 발굴이 청사진 그리기로 끝나버리면 곤란하다. 그 어떤 사업이고 발굴은 목적이 아니다. 전북도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좀더 힘차게 뛰어아졌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